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살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 길을 묻는 이에게 | 달랑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15호
서기 2001년 4월 18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생활 쉼하니 집착 없이 살라

옛날에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필요로 했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고 그냥 비켜버리면 안되지요. 그냥 외워서 일하고 한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주인공이라는 불성에 모든 것을 놓아야죠. 여러분의 불성은 여러분의 참 본배이자 여러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논설 하나에 여러분의 불성을 쓰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죠. 왜냐하면 사명대사가 일본을 가는데 어떤 선지식이 문기를 일본에 가면 목이 달아나가기 쉬운 데 어떻게 가려고 하시느냐고 하니가 제가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했어요. 내가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었느냐고 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다 알아놓듯이, 뒤집듯이 중을 울렸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중요했듯이 지금 생각할 때에 참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뿐이 아니라 발우 공양을 하다가도 부처님 앞에 올렸던, 그때는 지금처럼 공양을 그릇에다 가득 채워서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발우 공양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공양을 내려야지 먹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주지스님이 죽비를 탁 치면서 하는 소리가, 저 밥은 누구로 인해서 먹느냐는 얘깁니다. 저 밥은 누구로 인해서 먹으며 누가 저 밥을 떼땀이 갖다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이걸 말로 해서도 아니 되는 거고 말을 안 해서도 아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조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지스님으로 인해서 먹는다. 또 부처님으로 인해서 먹는다. 또 신도들로 인해서 먹는다. 여러 소리가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스님이 말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죽비를 다시 한번 치면서 악을 쓰니까 '제 밥 저 먹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서 내 쪽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뭐 잘못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나' 없는데 상대 있으랴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공부를 알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퍼득 알아들었었을 건데 말입니다. 불 때는 부목으로 내 쫓았으니 수행자가 부목으로 내려보냈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 보냈으니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패서 아궁이마다 불을 지피면서 드 정갈 상갈을 솟아 가면서 즐겁게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서 안고 이 아궁이 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하는 소리가, '어찌다가 벌이 방에 들어와서 유리창을 보고 그게 머리 줄 알고 그냥 거기다가 얼굴을 박고 문질러 부딪치니 머리가 깨져서 죽는구나.'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할 점입니다.

왜 자기 밥이라고 했는지, 왜 벌이 어찌다가 들어와서 유리창문이 문인 줄 알고 거길 박고 그래서 떨어져 죽는다는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한 번쯤은, 아시는 거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죠.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문득 문득 생각할 때 한번씩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해 보시라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그냥 생활하고 도구나. 그래서 도가 벌 따로 없구나 하나 벌 따로 없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또 거기 이유가 들어가지만 말이 길어서... 그리고 왜 사명대사가 자기가 없는데 상대가 있겠느냐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일상생활이 다 공해서 돌아가고 오온이 다 합해서 공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바쁘게 돌아치죠. 만나기도 하고, 뭘 해야 하기도 하고, 뭘 결정짓기도 해야 하고, 말을 해야 뭐 돌아가고, 현상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새는 아마 더 바빠 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요새는 좀 더 바빠

데 어디다가 끌려고 찾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따님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갈까봐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아서 고만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말을 하려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열반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아버지가 앉아서 또 갔습니다. 그런데 마나님이 바깥을 내다보면서, 남편도 그렇고, 딸도 다 갔으니까 밭에서 김을 매다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소리죠? 평이로 밭을 매다가 평이를 든 채 그냥 서서 가 버렸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매다가 말고 호미 든 채로 바쁘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하하하. 재밌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분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앞으로 끌여가는 세월을 생각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분들이 왜 그렇게 벌여 놓고 가셨습니까. 벌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림 · 최주현

살려면 남의 마음 아프게 말고 섭섭케나 업신여기지도 말고 못난대로 자기와 똑같이 보자

공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알리고 노력 하세요. 그러면 들어가실 때도 빨리 나가 가야겠다 하면 벗어서 놓고 그냥 갈 거 아니니까. 거기에 다 달렸죠. 그런데 삼년씩, 이년씩, 몇 년씩 알고 병이 들어서 자식들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이고, 친척들도 고생이고, 돈이 없어서 고생이 더구나 온통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부실 거사 가족은 간 사이도 없이 그렇게 갔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죽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피땀을 흘리고 해야만 되느냐 이 소립니다. 생각하면 말입니다

집착 말고 뛰어넘어라

옛날에 난리가 나서도 그렇고, 일본사람들이 말을 타고 싸우러 가면 돌부처가 말을 타고 가질 못하게 해서 그 이웃을 다 살렸답니다. 왜 그렇게 말이 가다가 막 뛰어 나가고 서서 가지를 못하느냐 이 소립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돌부처가 나가면 아무것도 바쁘게 돌아치면서 하루를 사셨다고 봐요.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 걸음에 지나지 않습니까? 반 걸음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냥 계셨습니까? 움직여주고 지내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부실거사가 말입니다. 따님도 있고 아드님도 있고 마나님도 있는데 말입니다. 스님들이 가서 노자를 좀 달랠까? 노자는 받아 뭘 하느냐고. 여길 가도 그 자리, 저길 가도 그 자리인

나온 처와 아이에게 오후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보자고 했고, 그 동안 연극구경을 하도록 보냈을 때

3시간 반 동안의 레이스는 온전히 혼자서 주인공을 발현시켜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아무런 의심 없이 녹아서 있어야 하는 외롭게 제 스스로 찾아 나선 발길이었습니니다.

군자교를 지나 10킬로 매트를 밟을 즈음에 무릎의 통증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늘 그러했듯이 곧바로 관했습니다. 뛰게 한 것도 녀야, 아프게 하는 것도 녀야 아프다고 느끼는 것도 녀야 녀야 녀야 책임지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스님을 불렀습니다. 49분에 지나가고 있었으니 기록으로는 그럴 듯 했습니다. 늘 10킬로미터를 50분 기량으로 주파했기 때문에 그냥 무심으로 내달려 나갔습니다. 잠실대교를 건널 때 그 다리가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제발이었습니니다. 11시 법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스님께 보고 드렸습니니다. 절에 앉아 있어야 할 놈이 울해도 여길 뛰고 있습니다. 절과 길바닥이 같은 곳이고 앉았는 것이나 이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달리는 것이나 다름 없게 멀리서 11시 법문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순인하게 집중하는지를 다루어 보고 몸뚱이를 던집니다. 라고요. 천호 사거리까지 갔습니까? 일이 해결 나고, 들어가 주니깐 그 사람이 보시를 받고, 받는 사이도 없이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죠. 그럼 그걸 받은 인연 때문에 요 다음에 재생을 하더라도 참 아름답게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을 뛰어든 뒤는 사이도 없다는 것을 알게끔 될 때 그걸 자꾸 해 보세요. 하다 보면은 아! 내 육신은 아무리 걸어서 몇 십리 몇 만리를 가도 속도가 나질 않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내 안에 불성은 보배야. 참나에 다른 속성이 갈 수가 있어. 그러니 이 껍데기만 의지하고 살지 말고 내면의 불성을 진짜로 의지하고 살아야 이 소립니다. 아파도, 아프게 하면 어떡해. 네가 형성시켜 놓았잖아. 정말 사람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위의 모든 것이 딱 막히고 그래 보세요. 정말 눈물나죠. 눈물남니다. 호호롭게 잘 살아 본 사람은 그걸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죠.

껍데기를 자기로 알아

몇 년 전 이렇게 눈물과 콧물에 뒤범벅이 되어서 춘천 의암호를 끼고 돌면서 화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면 그 오름과 같이 안겨 주던 국환의 고승께서 스님을 부르며 주인공을 찾던 그 사무치던 순간이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니다. 주인공, 너가 하는 법은 네 귀에 들리게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마음을 놓고 또 놓아가고 있을 때 주인공은 대열에서 벗어나서 쓰러지게 내 동행이쳐버렸습니니다. 자기를, 28킬로 지점이었습니니다. 뒀글면서 시계를 보니 한 시 십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니다. 두시간 십분에 다리가 마비된 것입니니다. 28킬로 밖에 안 뛰었는데, 아직 15킬로나 남았는데, 바람을 세치고 자기 자신과 묵묵히 싸우는 장한 선수들의 대열은 끝없이 지나가는데, 저는 길가에 뒀글어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들어오는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그냥 사무치고 있었습니니다. 그 때 주인공이 보였습니니다. 어련히 손을 잡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사공파리를 찾더니 드디어 제 가슴에 붙은 5500번 번호표를 핀을 빼내서는 무릎을 마구 난사했습니니다.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차츰차츰 무릎의 마비는 풀리는 가 했더니 다시 위로 스물스물 오르러 내리락하더니 왼쪽 사타구니가 터질 듯이 부풀어오르면서 쥐가 나서 다시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니다. 그 고마운 양반이 또다시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찢러 나갔습니니다. 조금 스물이 쉬어지는가 싶더니 또 오른쪽 무릎이 그렇게, 또 그 위 사타구니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그 30여분 동안도 저는 스님을 부르며 주인공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떼어놓고 나가려는 엄마 치마폭을 잡고 매달리듯이, 저는 드디어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해, 걸어서 다닐 수 있게 해, 뭘 수 있게 해, 네 놈이 두 다리를 못쓰게 했으니 풀어서 경쾌하게 내 달릴 수 있게 하는 놈도 녀야 아니냐. 저는 한사코 매달렸습니니다. 이번에는 뛰지 말라고, 이시하느라 청소하느라 며칠동안 밤늦게까지 무리했고, 금요일 강의가 많아서 많이 지쳐 있었고, 토요일은 제가 맡은 학교의 보직